



# 전선혜 교수의

## 국가직 9급 해설 - ②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 1. 정답 2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자음 앞의 [ㄹ]은 '슈'로 적는 원칙에 따라 'shrimp'는 '슈림프'로 적는다.

### 2. 정답 1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보조사 '는'의 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대조 이외에도 문장 속 화제를 나타내거나 일반적인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다.

선택지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에서 '가다가'라는 동사를 문맥상 다른 대상과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보조사 '는'은 단순히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참고 - 보조사 '는'의 용법

「1」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비가 많이는 오지 않았다.

「2」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나는 학생이다.

편지는 "형님 보십시오"로 시작하였다.

「3」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는 지각하겠다.

<오답 해설>

#### ② 만

「1」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2」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3」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4」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5」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너무 피곤해서 눈만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 ③ 대로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④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예 그는 편지는커녕 제 이름조차 못 쓴다.

### 3. 정답 4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므로 제시된 내용의 교씨기 남을 모함하다가 결국엔 벌을 받아 처형되는 내용에 알맞은 말이다.

<오답 해설>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전선혜 교수의

## 국가직 9급 해설 - ②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 4. 정답 1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고, 보수를 적게 받은 사람은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는 것이 내용에 부합된다.

### 5. 정답 2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로마 여행에 대한 것은 화제를 제시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며,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를 가장 먼저 가 보라'고 권유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필자가 로마에 가 보라고 한 이유는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문장에 드러난다. 즉, 단순히 로마 여행을 먼저 할까 나중에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로마에 가야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고, 필자는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 6. 정답 3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제시문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예언가나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의 역할 혹은 임무에 대한 것이므로 '사명(使命)'이 가장 알맞다.

### 7. 정답 3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은 어린 시절 집에 홀로 남아 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외로움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에서는 빈방에 홀로 외롭게 남겨진 어린 화자가 늦게까지 안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드러난다.

### 8. 정답 3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천상병의 <귀천>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죽음에 대한 달관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이슬'은 2연의 '노을빛'과 함께 아름답지만 금방 소멸하는 유한한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③번의 '꿈' 역시 금방 사라지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 ① 눈물: 어머니의 사랑과 회생
- ② 나뭇잎: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
- ④ 구름: 자유로운 존재

### 9. 정답 2번

<난이도> 상

<정답 해설>

②번은 서로 반의관계이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 '함지(咸池)'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나머지는 모두 유의관계이다.
- ① ·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 잡아 고침.
    -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 ③ ·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④ · 갈등(葛藤):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



# 전선혜 교수의

## 국가직 9급 해설 - ②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 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 10. 정답 2번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김 교수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여 전달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견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 11. 정답 4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④번은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된 문장인데, 여기서 ‘그것하고’의 ‘하고’는 비교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스승이라기 보다는’은 붙여서 ‘스승이라기보다는’으로 써야 한다. ‘보다’는 비교격 조사이다.
- ② ‘황소 같이’는 붙여서 ‘황소같이’로 써야 한다. ‘같이’가 ‘처럼’의 의미로 쓰이면 조사이다.
- ③ ‘밥은 커녕’은 붙여서 ‘밥은커녕’으로 써야 한다. ‘커녕’은 보조조사이다.

### 12. 정답 2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② ‘양갈음’은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준다는 의미의 단어는 ‘양갈음’이다.

### 13. 정답 1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뜻하는 말은 ‘콧방울’이며, ‘콧망울’은 비표준어이다.

### 14. 정답 4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이규보의 <경설>은 맑은 거울을 보지 않고 흐린 거울을 보는 행동을 통해 지나치게 결백하고 이상적인 자세만으로는 세상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수용할 줄도 아는 처세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므로 ④번의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오답 해설>

본문의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은 꼭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세상에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이 부족하거나 낮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 15. 정답 3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경원되어서’ 혹은 ‘경원을 사서는’이라는 말은 모두 어법에 어긋난다. ‘경원(敬遠)’은 ‘공경하되 가까이하지는 않음,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꺼리어 멀리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서술어로 ‘되다’나 ‘사다’를 쓰지는 않는다. 문맥적 의미를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가 가장 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 ‘멀리하다’라는 의미로 ‘경원’을 쓴다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해서는 안 된다’ 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겉



# 전선혜 교수의

## 국가직 9급 해설 - ②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원시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고치면 된다.

### 16. 정답 3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안긴문장이 하는 역할을 찾는 문제이다.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이므로 안긴문장이 그 중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면 된다.

③번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에 안긴문장은 '아이들이 놀다 간'이며 관형절에 해당한다. 이것은 주어 '자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성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는 '주어+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교정이 넓다'가 서술절이며 이것은 문장 전체의 서술어 역할을 하므로 주성분이다.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에서는 '비가 오기를'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성분이다.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는 '-르지' 어미가 사용된 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문법에서는 따로 언급하는 바가 없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간접인용절을 만드는 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는 '대화가 어디로 튈지'가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몰랐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성분이다.

### 17. 정답 2번

<난이도> 상

<정답 해설>

②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을 의미하는 '간섭'은 '間涉'이 아니라 '干涉 방패(간) 건넌(섭)'으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使喚 시킬(사) 부추길(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③ 缺陷 이지러질(결) 빠질(함):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④ 剔抉 바를(척) 도려낼(결):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

### 18. 정답 4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원래 '몰두'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제시된 글에서는 이가 개의 연한 살에 머리를 빠뜨리고(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한자의 의미 그대로 '沒頭 빠질(몰) 머리(두)'로 '머리를 빠뜨리다(혹은 집어넣다)'로 해석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19. 정답 2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염상섭의 <만세전>은 3.1운동 이전의 어두운 조선의 모습을 '이인화'라는 동경 유학생(지식인)이 1인칭 주인공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동경에서 서울로 오는 여정 중에 목격하는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중심으로 서술되며, 마지막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형 소설이다.

제시된 본문에는 1인칭 서술자인 '나'가 다른 인물들의 대화를 듣고,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전선혜 교수의

국가직 9급 해설 - ②책형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20. 정답 1번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본문에 제시된 대화의 요건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양의 격률,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질의 격률,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보기>의 대화 중 대화(1)은 체중에 대해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로 대답했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잘 지켰다.

<오답 해설>

② 대화(2):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이라는 말은 진실된 정보가 아니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③ 대화(3): 자신의 나이만 말하면 되는데, 형의 나이까지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달하는 것이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④ 대화(4):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대답했으므로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